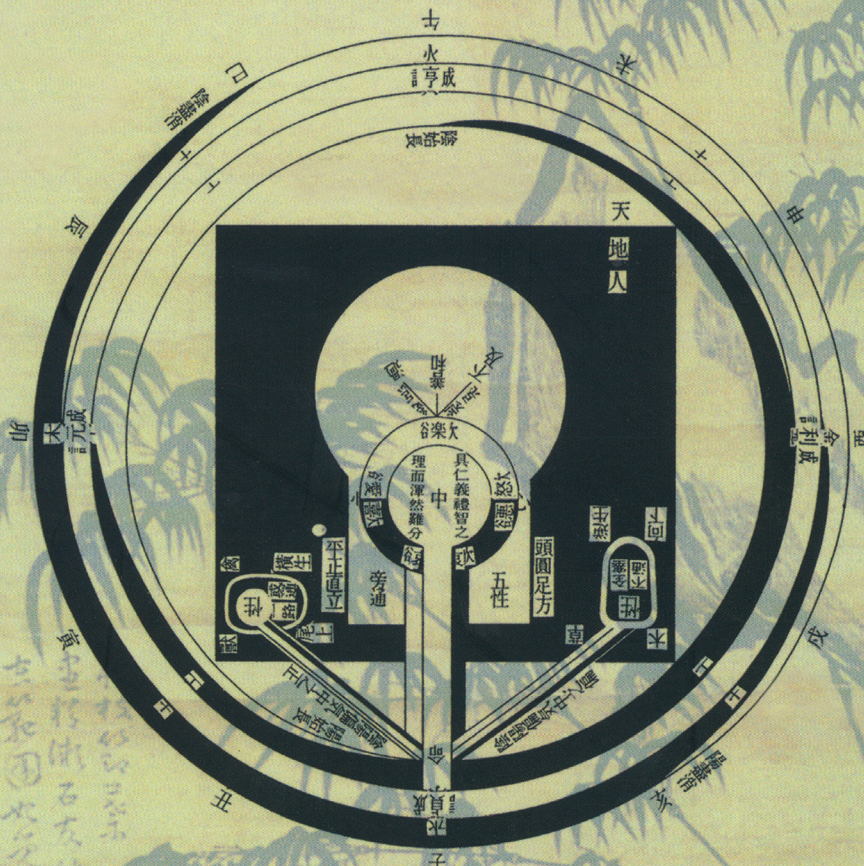


河西金麟厚先生天命圖研究

— 鄭秋巒, 李退溪의 天命圖와 比較 —

金容淑 編著



河西金先生天命圖

筆巖書院 山仰會報



河西先生 生家の 百花亭

河西先生 全集舊序

趙希文

※ 이 글은 河西先生이 돌아가신 지 8년 후인 1568년에 큰 사위 月溪 趙希文이 쓴 글로 先生의 삶과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편집자)

큰 도는 다스리지 않는 공을 지니고, 지극한 덕은 형적이 없는 조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런 때문에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쉬지 않는 굳셈이 있고, 말을 하지 아니해도, 만세의 눈을 결정하며 물(物)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 이뤄지는 까닭을 알지 못하고 사람은 즐거워하지 않는 자 없으나, 그 즐거워하게 되는 까닭을 알지 못한다. 지혜는 만물을 두루 통해도, 못 사람이 다 그 밝음을 보지 못하고 충성은 해와 달을 꿰어도, 온 세상이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며, 강상(綱常)과 윤기(倫紀)가 이를 힘입어 서게 되며 성현의 도가 이를 힘입어 떨어지지 않아도 그 소이연을 알지 못한다.

이른바, 원기(元氣)의 모임을 받아 용덕(龍德)의 바름을 지니고, 천지의 위육(位育)에 참여하여 음양의 굴신(屈伸)을 순히 하며 백세를 두고 성인을 기다려 의혹하지 않는 것이니 나는 이를 우리 선생에게서 보았다.

선생은 나면서부터 단정하고 수미(粹美)하여 보통 아이와 달라 강보에 싸여 있을 적에도, 일찍이 찡찡거리지 않았으며 조금 커서는 함부로

희롱도 아니 했고, 서너 살 때에는 능히 詩句를 만들었는데, 그 의사가 깊고 멀며 기상이 넓고 커서 이미 사람으로는 능히 미치지 못할 바가 있었다. 그리고 七, 八歲 적에는 문명(文名)을 크게 떨치니, 부모는 일찍이 이록(利祿)을 진취하는 길로써 인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뜻을 성실히 하여 속이지 않는 그 방법으로써 보여주었다.

선생은 어려서는 가정의 교훈을 이어 받고, 장성해서는 사우(師友)의 보익(補益)을 바탕 삼았으며, 청명하고 순수한 기질로서, 성현의 성명(誠明)의 학을 뜻하여 들면 효도하고, 나면 공손하다는 훈계에 치력하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 전념하였다.

그 규모는 극히 컸으나 높고 먼 데로 내닫지 않으며 절목(節目)은 그 자상을 다하면서도 변경하고 세세한데 집착하지 않았으며, 일이 없으면 함양(涵養)하여 그 덕성(德性)의 자연을 보존하고, 글을 읽으면 정밀히 생각하여 義理의 무궁함을 살피곤 하였다.

그리고 사서오경(四書五經)에 침잠 반복하여 그 실용을 구하며 자사(子史)의 제서를 널리 상고하고 다 통하여 그 득실(得失)을 시정하였으며, 내외(內外)와 현미(顯微)를 한결같이 하여 성실에 근본을 두고 동정(動靜), 지행(知行)을

내리뛰어 공경으로써 주(主)를 삼으며, 공부가 비록 긴박하여도 감히 등급을 건너뛰어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한이 아무리 넉넉하다 할 때도 감히 조금도 간단을 두지 않았었다.

이미 위기(爲己), 위인(爲人), 의리(義利), 공사(公私)의 분간에 엄격하였거니와, 더욱 본말(本末), 정추(精粗), 도기(道器), 상하(上下)의 변설(辨別)에 삼가 하였으며, 기송(記誦)을 자랑하며 근본이 없는 자는 절대 취하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믿어 너무 고답하는 자에게도 역시 깊은 근심을 표했으며, 「도심(道心)은 적연(寂然)하여 움직이지 않고, 인심(人心)은 느껴서 드디어 통한다」에 대하여 『선생은 성인의 이른바 인심·도심은 다 동(動)하는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였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미발(未發)의 전에 구한다」에 대하여 선생은 『경(敬)을 가져 함양(涵養)하여 동(動)에 살피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고 「천리(天理)를 상달(上達)하는 것은, 유(儒)나 석(釋)이 동일하다」라는 구절에 대하여는 선생은 『노불(老佛)의 도는 본시 천리가 없는 데 그 상달이 어찌 우리 유(儒)와 동일하랴』 하였고 「주경(周經)은 영중(影中)의 천(天)을 말한 것이다」에 대하여 선생은 『성인의 말씀은 바로 천지의 도이니 영(影)이라 일러서는 아니 된다』 하였고 「행(行)에 독실하고 지(知)에는 약(略)해도 된다」 한 말에 대하여 선생은 『얕이 밝지 못하면, 행함에 있어 반드시 막히고 마니, 지와 행 두 가지에 하나를 폐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고, 「내면에 돈독하면 외면에 소홀해도 된다」한 말에 대하여, 선생은 『외면이 정제하지 못하면 내면이 일(一)을 주로 하지 못할지니 경(敬)과 의(義)를 아울러 닦아, 마땅히 양진(兩進)해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일재(一齋) 퇴계(退溪) 명언(明彦) 여러 친우들과 더불어 태극(太極)의 온오(蘊奧)를 발명하였으며 또 소재(蘇齋)와 더불어 왕복하여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논한 바에 대하여 퇴계는 그 지위가 고명함을 극히 칭찬하였으며, 평시에 문인(門人)들과 더불어 공부하는 진실면을 지시하면서 태극, 《서명(西銘)》, 《근사록(近思錄)》, 《대학(大學)》, 《소학(小學)》을 극론하여 《주역(周易)》의 모든 경(經)에 이르기까지도 의론이 정미(精微)하여 하나같이 정(正)에서 나왔다. (지금 다 기록하지 못함.)

중론(衆論)이 분분해도 반드시 그 요령을 알아 호리를 살피어 근사한데 현혹하지 아니하고 변론은 남 이기기를 좋아하지 않으나 취사는 반드시 엄하며 제유(諸儒)의 동이점을 다 궁구해서, 정주(程朱)의 성법(成法)을 삼가 지켰으니, 가위 성현을 독실히 믿고, 실리(實理)를 참으로 안 것이라 하겠다.

평생에 이단(異端)의 부정한 글월은 보지 않고, 세속의 무익한 유희는 만들지 않으며, 조용히 예(藝)에 노닐어 움직이고 쉽게 다 소양(素養)이 있고, 그 덕이 신명(神明)하여 진서(眞書)와 초서가 모두 묘경에 도달했으며,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약(醫藥), 복서(卜筮), 산전(算筭), 율려(律呂)의 법까지도 깊이 그 설을 연구하여, 그 귀취를 발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학문은 극히 넓었으되, 스스로 많다 아니하여 반드시 남에게 묻고, 얕은 극히 精했으되 스스로 옳다 아니하여 반드시 남에게 질정하였으며, 발언은 자상(慈祥)하고, 간중(簡重)하며, 처사는 정밀하고 정대하며, 다습고 깨끗함은 정금(精金) 미옥(美玉)과 같아 일호의 섞임을 용납하지 않고, 맑고 통함은 빙호(氷壺)의 가을 달과 같아

한점의 티끌도 물들지 않았으며, 한 굽으로 쏘는 정성은 금석(金石)을 뚫을 만하고 지극히 큰 도량은 하해보다 넓었다.

하물며 훼손(毀譽)가 마음에 끼이지 않고, 희로(喜怒)가 안색에 나타나지 않으며, 신(神)은 방향이 없으며, 움직임은 일정하며 그 높음을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미쳐갈 수 없고, 그 깊음을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헤아릴 수 없으며 평소에는 조용하여 말이 없으나, 술을 마시게 되면 호기가 발동하여, 한잔 마시고 한수 읊으며 취할수록 더욱 많이 읊되, 산삭(刪削)할 글귀는 보이지 않고, 의리(義理)를 논하며 간혹 좋은 해학이 곁따르되 가려낼 말은 들리지 않으며, 바라보면 서일(瑞日), 상운(祥雲)과 같고 접근하면 화풍(和風) 감우(甘雨)와 같으며, 말을 들으면 사람마다 기뻐하고, 얼굴을 보면 사람마다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천지 생민(生民)으로써 마음을 삼고, 우리 도(道)의 흥쇠(興衰)로 자기 책임을 삼으며, 나아가 경연(經筵)에 입시할 적에는 선유(先儒)의 원억(寬抑)을 극력 구원하여, 범하기 어려운 기휘(忌諱)를 피하지 아니하고, 물러나 구원(丘園)에 한가히 있을 적에는 굴하지 않는 절개를 확립하여, 훈천(熏天)의 세염(勢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화복(禍福)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간사한 세상이 그 덕을 어지럽히지 못하며, 선(善)으로써 아버지를 봉양하여 보본(報本)의 예를 중히 여기고, 정(正)으로써 집에 거하여 화순(和順)의 낙을 극진히 하며, 군신(君臣)의 의는 사생(死生)으로써 그 지킴을 옮기지 아니하고, 봉우(朋友)의 신(信)은 존몰(存沒)으로써 그 정을 변하지 아니하며, 오직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 것을 일로 삼되 항상 자신을 잊고

국가에 봉사할 뜻을 가졌으며, 의리의 용맹과 강대한 기운이 부월(鈇鉞)보다 늠름하고 천지에 가득 차서, 생민(生民)의 지성을 부식(扶植)하고 사문(斯文)의 명맥(命脈)을 유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를 아는 자가 적었다.

심지어, 영허(盈虛) 소장(消長)의 이치를 살피고, 낙행우위(樂行憂違)의 도에 밝으며, 기미(機微)를 알기는 신(神) 같으며 천리로써 움직이고, 출처는 정대하여 여유가 작작함과 동시에 강해도 부러지지 않고, 부드러워도 휘이지 아니하여 근세 제공으로는 따라가지 못할 바가 있음을 아는 자는 더욱 적었다.

그 사람 가르침에 있어서는 승묵(繩墨)을 고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도로 이끌어, 재주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기 소득이 있으며, 은혜롭게 아니해도 사랑받고 엄하게 아니해도 높아져서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이 원근에 넘쳤으며 유독 사림(士林) 동지의 사람들만 태산 북두(北斗)와 같이 우리를 뿐 아니라 심지어 촌야(村野)의 농사꾼, 갑주(甲冑)의 무사(武士) 승려(僧侶)들까지도 자연히 심열성복(心悅誠服)하지 않은 자 없어 오래갈수록 그 도는 더욱 드러났으니, 이 어찌 다스리지 않는 공을 지니고, 형적 없는 조화를 나타내어 백세를 기다려도 의혹하지 않는 그에 해당되지 않으랴.

선생의 시문은 위로 당우(唐虞) 삼대(三代)를 소급하고, 초한(楚漢), 당송(唐宋)을 범람하여 조예의 깊이는 전성(前聖)의 온오(蘊奧)를 파헤치고, 말 만드는 묘법은 사물의 정상(淸狀)을 다하여 정의(精義)의 발현이 아닌 것 없고, 한번 날로 하면 한번 씨로 하여 마치 봄바람이 물(物)에 불면 물마다 각기 저절로 번영하는 것 같아, 그 조화의 진경은 인력(人力)을 용허하지 않음

과 같다. 조년의 작은 화평하고 충담(中澹)한 맛이 많으면서 호방한 기운이 있고, 만년의 작은 다시 고명하고 순정(純正)함을 깨닫게 하면서 간혹 강개 비분한 언사가 있으니, 대개 목전의 변고에 느껴 불평의 울음을 발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니와, 슬퍼해도 상하지 않고, 분해도 격하지 아니하여, 역시 성정(性情)의 정(正)에 돌아갔을 따름이다.

아! 선생은 그 도덕 문장의 아름다움으로써 세운(世運)이 통태(通泰)하는 날을 만나 못 어진 이와 더불어 함께 조정에 서게 되었다면, 임금의 덕을 보양(輔養)하고 왕도를 빛나게 함에 있어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었을 터인데 하늘이 선생을 남겨 두지 않았으니, 원통함을 이루 다 헤아리라.

선생의 전집은 화재의 액을 입어,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같은 제서(諸書)는 지금 다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욱 애석하다.

나는 선생의 유고(遺稿)를 수집하여 팔년만에 약간 권을 얻어, 백상사(白上舍) 광훈(光勳-玉峯)에게 초서(抄書)의 역(役)을 의뢰하였던 바, 상사는 사양하지 않고 노고를 맡아 주었으며, 감사(監司) 송상공(宋相公) 순(純) 도사(都事) 민선생(閔先生)이 재목은 구하고 공인을 모아 판각의 성공을 보게 하였으니, 이 또한 선생의 기록한 덕이 두 선생과 상사의 호선(好善)하는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돌아보건대 감각(監刻)의 어려움과 교정의 정상(精詳)에 있어서는, 선생의 도를 깊이 알고 성심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이므로 마침내 문인(門人) 양자징(梁子徵), 신군각(申覺)

에게 요청하여 그 역을 맡게 함과 동시에 선생의 아들 종호(從虎)가 구송(口誦)한 수 백 여수를 얻고, 문인 노적(盧適), 기효간(奇孝諫), 변성온(卞成溫)이 또한 각기 얻은 것을 가지고 와 손수 써서 각하여, 그 정성을 다했으며, 그 나머지로 여러 문인에게 흠어져 있어 미처 수집 못한 것은 마땅히 후일을 기다려서 다시 별집(別集)을 만들 수밖에 없다.

역사가 끝이 나자 서로 함께 그 시문을 외우면서, 그 의취(義趣)를 심역(尋繹)해 보니 당시 함장(函丈)의 사이에서 문답하던 것과 방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경모(敬慕)하는 마음이 들어 마지않게 한다.

후일 이 전집을 읽는 자는, 역시 반드시 동일한 느낌이 있으리니, 진실로 항상 좌상(座上)의 봄에 친자(親炙)하듯이 하여 사숙(私淑)을 한다 면 그 학문과 사업이 어찌 얕으랴 하랴.

용경(隆慶), 무진(戊辰)년 봄 이월 십 육일 문인 파산(巴山) 조희문(趙希文) 근서(謹序)

發 祝 刊

大同의 꿈과 나의 발자취

邊 璫 燮

이화 문화출판사

河西先生全集舊序

大道有不宰之功，至德著無迹之化，是故至柔而有不息之強，不言而定萬世之論，物莫不遂，而不知其所以遂，人莫不悅，而不知其所以悅，知周萬物，而衆皆不見其明，忠貫日月，而舉世不識其實，綱常倫紀，賴之以立，聖賢之道，賴之不墜，而不知其所以然，所謂稟元氣之會，而有龍德之正，參天地之位育，而順陰陽之屈伸，百世以俟聖人而不惑者，吾於先生見之矣。先生生而端正粹美，異於常兒，在襁褓，未嘗啼哭，少長，未嘗妄戲，數歲，能爲詩句，意思深遠，氣象廣大，已有非人所能及者，七八歲，文名大振，父母未嘗導之以進取利祿之途，常視之以誠意不欺之方，先生少而承家庭之訓，長而資師友之益，以清明純粹之質，志聖賢誠明之學，致力於入孝出恭之訓，而專精乎修己治人之道，規模極其大，而不驚於高遠，節目盡其詳，而不滯於煩碎，無事則涵養而存其德性之自然，讀書則精思而察夫義理之無窮，沈潛反覆於四書五經，以求其實用，博考旁通於子史諸書，以訂其得失，一內外顯微，而本之於誠，貫動靜知行，而主之以敬，工夫雖緊，不敢躐等以進，期限雖寬，不敢少有間斷，既嚴於爲己爲人義利公私之分，而尤謹於本末精粗道器上下之辨，誇記誦而無本者，既不取之，恃聰明而過高者，亦深憂之，【有曰：道心寂然不動，人心感而遂通者，先生以爲聖人所謂人心道心，似皆指動

處而言。有曰：求喜怒哀樂於未發之前者，先生曰：不如持敬涵養而察之於動。有曰：上達天理，儒釋一者，先生以爲老佛之教，本無天理，其上達，豈同於吾儒。有曰：周經，且說影中天者，先生以爲聖人之言，即天地之道也，不可謂之影。有以爲篤於行而略於知者，先生曰：知之不明，則行之必窒，知行二者，不可廢一。有以爲敦乎內而忽於外者，先生曰：外不整齊，則內不主一，敬義交修，須當兩進。其他與一齋退溪明彥諸友，發明太極之蘊，又與蕪齋往復論夙興夜寐箴，退溪極稱其地位高明，平時與門人指示用工真實之地，極論《太極》《西銘》《近思錄》《大·小學》，以至《周易》諸經，議論精微，一出於正，今不能悉記。】衆論紛然，而必知其要，察之於毫釐，而不惑於近似，辨不好勝，而取舍必嚴，盡究諸儒之異同，而謹守程朱之成法，可謂篤信聖賢，而真知實理者也。平生不見異端不正之書，不作世俗無益之戲，從容游藝，動息皆有其養，神明厥德，真草俱入於妙，天文地理醫藥卜筮篆隸呂之法，亦莫不深究其說，而發其歸趣，學極其博，而未嘗自多，必問於人，知極其精，而未嘗自是，必質於人，發言則慈祥而簡重，處事則精詳而正大，溫粹如精金美玉，不容一毫之雜，洞澈如冰壺秋月，不污一點之塵，不貳之誠，通乎金石，而至大之量，洪乎河海，毀譽不累於心，喜怒不形於色，神

無方而動有常，不見其高，而人不可及，不見其深，而人不可窺，平居則寂然無語，得酒而豪氣乃發，一觴一詠，愈醉愈多，而未見可刪之句，縱論義理，間以善謔，而不聞可擇之言。望之如瑞日祥雲，接之如和風甘雨，聞之而人皆喜，見之而人皆悅，然其以天地生民爲心，以吾道興衰爲己任，進而入侍經幄也，力救先儒之冤，而不避難犯之諱，退而閒居丘園也，確乎不屈之節，而不恤熏天之焰，禍福不能動其中，邪世不能亂其德，以善養親，而重報本之禮，以正居家，而極和順之樂，君臣之義，不以死生而移其守，朋友之信，不以存沒而變其情。惟以進德修業爲事，而常有忘身殉國之志，義理之勇，剛大之氣，凜乎鈇鉞，塞乎天地，有以扶植乎生民秉彝之重，而命脈乎斯文之大者，則知之者鮮矣，至於察乎盈虛消長之理，明乎樂行憂違之道，知幾其神，而動之以天，出處之正，綽綽然有餘裕，而剛不折，柔不辱者，有非近代諸公所及，則知之者尤鮮矣，其教人也，不改繩墨而，必以其正，隨才高下，而各有所得，不惠而愛，不嚴而尊，遺風餘韻，溢乎遠邇，非獨士林同志之人，仰之如山斗，下至村野之人，甲冑之士，方外之徒，亦莫不自然誠服，久而其道益顯，此豈非有不宰之功，著無迹之化，俟百世而不惑者也。先生詩文，上溯乎唐虞三代，汜濫乎楚漢唐宋，造詣之深，發前聖之蘊，措辭之妙，盡事物之情，莫非精義發見，一經一緯，如春風吹物，物各自榮，造化之真，不容人力。早年之作，多和平冲澹之味，而有豪放之氣，晚歲更覺高明純正，而間有慷慨悲憤之辭，蓋感乎目前之變，而發於不平之鳴，不得不爾，而哀而不傷，憤而不激，亦歸於性情之正而已。嗚呼，以先生道德文章之懿，遇陽道亨泰之日，與群賢共立於朝，其輔養聖德，黼黻皇猷，固不可量，而天不慤遺，可勝痛哉。先生全

集，厄于回祿，如《西銘》事天圖《周易》觀象篇諸書，今皆不見，尤可惜也。余搜輯遺稿，八年而得若干卷，倩白上舍光勳抄書，而上舍不辭以勞，監司宋相公都事閔先生，鳩材聚工，以濟繡梓之功，是亦豈非先生之德，有以深感於二先生與上舍好善之心也耶。顧以監刻之難，校讎之精，非深知先生之道而有誠心者則不可，故遂邀門人梁君子澂申君覺，而主其役，得之於先生之子從虎口誦者數百餘首，門人盧適奇孝諫卞成溫，亦各持所得而來，手書以刻，以盡其誠，其他散在於諸門人而未至者，則當俟後日，更爲別集也。役既告訖，相與誦其詩文，而尋其義趣，彷彿乎當時問答於函丈之間，令人自有敬慕之心而不能已，後之讀是集者，亦必有同然之感，苟能常若親炙於座上之春而私淑焉，則其學問事業，豈淺淺乎哉。隆慶戊辰春二月既望門人巴山趙希文謹序

필암서원 소식(筆巖書院 消息)

※ 3월 15일 長興문화원

김기홍 원장 전장성 부군수 白道善, 장흥향교
유림원로 朴性珪氏외 600명 봉심

※ 4월 14일 金善從의 무안 유림 200명 봉심

※ 5월 6일 경북 蘭菊會 李震基 회장 외 20명
봉심

※ 5월 23일 대전시 文忠祠 淵齋先生 종손 宋永
文외 10명 봉심

※ 순천시 비봉한문화원 金大衆 朴文姬 원장
외 30명 봉심

河西 金麟厚先生の 聖人中心 學問

安炳周 (成均館大 명예교수)

儒敎의 역사는 理論補完의 歷史 (朱子學의 學問觀은 사람은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다.

中國山東省 曲阜市에 있는 孔廟의 大成殿의 머리 부위에는 「生民未有」라는 네 글자의 橫額懸板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自有生民以來로 未有孔子也」시니라. (이 세상에 生民이 있는 이래로 孔子같은 분은 계시지 않았다.), 또는 「自生民以來로 未有盛於孔子也 (生民이 있는 이래로 孔子보다 더 훌륭한 분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 孟子의 말에서 生民과 未有的 네 글자를 딴 것이다.

儒敎에서 孔子에 대한 尊崇의 정신은 이처럼 절대적이고 확고하였다. 그러면서도 유교의 역사는 理論補完의 역사였다. 우선 孔子가 제일 「好學」이라고 평가한 顏回와 亞聖으로 일컬어지는 孟子에서는, 孔子의 聖人 개념의 內包가 크게 변화하였다.

원래의, 중국 고대에 있어서의 「聖人」의 뜻은 하늘[天]의 도(道) 즉, 우주의 理法을 체득하여 이에 근거해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規範을 세운 이상적인 王者이거나 또는 그러한 德의 소유자를 의미하였다.

옛날의 이상적인 王을 儒敎의 글에서는 古之聖王으로 일컫고 있는데 堯임금과 舜임금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孟子』 이전의 중국고대에 서는 이같은 聖人の 경지는 보통사람으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 孔子의 경우에는 심지어 「聖人」의 경지는 堯나 舜 자신도 오히려 도달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論語』에는 「聖」 또는 「聖人」이란 말이 극히 드물다. 오히려 「君子」란 말은 100회 내외로 많이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보통사람으로서는 도달하기 힘든, 저 멀리 있는 理想的인 인간으로서의 聖人개념의 내용을 바꾸려고 한 理論補完의 試圖가 있었으니, 그것은 곧 顏回와 孟子에 의해 이루어졌다.

「舜」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 노력하면 순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舜何人也, 有爲者亦若是)라고 한 것이 顏回의 말이고 이것이 『孟子』의 (滕文公章句上)에 실려 있다. 顏回와 孟子에 의해 聖人の 경지는 학문과 노력을 통해 도달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顏回와 孟子에 의한 聖人概念의 內包의 변화이다.

이 성인개념의 내포의 변화는 宋代의 新儒學 즉, 주자학이나 「聖學十圖」의 退溪先生, 「聖學輯要」의 栗谷先生, 仁宗의 聖學에 깊은 영향을 준 河西선생의 聖學, 그리고 至治主義의 靜菴

선생의 學問觀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들에게 있어 聖人の 경지는 학문을 통해 도달가능한 것이었다.

年譜에 의하면 河西선생은 22세 때, 成均館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24세때 (1533년 癸巳)에는 成均館에 遊學하여 退溪李先生과 더불어 學問을 講論하였다고 한다.

이 때는 이미 己卯士禍를 겪어 선비들의 士氣가 沮喪되어 道學에 대한 언급을 피하였는데, 河西선생은 退溪선생을 만나자 바로 깊이 서로 契合하여 끊임 없이 講磨하여 麗澤의 도움이 서로 매우 많았다.

얼마 있다가 退溪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河西선생은 贈詩를 통해 送別의 情을 표현하였는데 여기에는 「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의 句가 있었다고 한다. 嶺南의 뛰어난 분, 李白, 杜甫의 文章에 王羲之와 趙孟頫의 筆才가 있다는 칭송이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退溪와 河西, 두 선생의 學問이 바로 道學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의 學問觀은 곧 학문의 목적을 聖人이 되는데 둔 顏回나 孟子的 聖人觀과 一致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退溪言行錄」에 의하면 퇴계선생은 하서선생을 「金河西의 晩年の 見解는 매우 精密하였으며 義理에 관한 論說은 알기 쉽고 명백하다며 매우 칭찬하였다고 한다.

또한 盧守愼의 「夙興夜寐箴解」를 논하면서, 그 가운데 「君子必以心爲一身之主宰」라고 한 대목에 대하여 「心은 본래 一身의 主宰이지만 사람이 主宰로 삼은 연후에라야 주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氣가 섞여 外物에 유혹되면 心이 외부로 치달아서 몸에 문득 주인[主宰者]이 없

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능히 敬으로써 이것[心]을 바르게 하면 곧 心[마음]이 문득 전과 같이 주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心을 一身의 主宰로 삼고 그런 뒤에 敬을 一心의 主宰로 삼는다고 말하면 그 마음을 一身의 주재로 삼을 때엔 장차 어디로부터 어떻게 착수할 것인가. 주자는 「...物이 능히 주재하는것이 아니라고 ...」 하였고, 또 이어 「곧 오직 整齊嚴肅[敬]이라야 가운데에 主宰함이 있게 되고 <외물에 유혹되지않는 本來의> 마음이 저절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朱子> 「物이 능히 主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곧 오직 敬이라야만 가히 主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朱子> 「가운데에 주재함이 있고 마음이 저절로 보존됨이 있다」고 하였다면 곧, 가운데에 주재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敬」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心本一身之主宰, 非人以爲之主宰然後主宰之也. 惟其氣雜而誘於物, 則心馳於外, 而身便無主. 能敬以直之, 則心便宰如前矣. 今日, 以心爲一身主宰, 然後以敬爲一心主宰, 則方其以心爲一身主宰之時, 將何所下手耶. 朱子曰,..... 非物所能宰也..... 而又擊之曰, 蓋惟整齊嚴肅, 則中有主而心自存. 其曰非物所能宰, 則惟敬可以宰之. 其曰中有主而心自存, 則中有主者, 非敬之爲乎) (『文集叢利』(33)p. 230)上段.라고 비판하여, 퇴계로부터 「河西의 견해는 그 뛰어난 造詣에 미칠 수가 없구나. 나도 전일에 이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능히 이 잘못된 견해를 깨는 논리를 찾지는 못하였었다.(此段河西所見, 超詣不可及. 滉前日非不知此理, 而不能見破此病)」라는 극찬을 받았다.

靜菴 선생은 「화초를 사랑하는 것, 새를 사랑

하는 것 등은 마음을 바깥으로 치닫게 하여 진흙에 빠지게 되므로 진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여 個人的 내적인 수양을 강조하였는데, 수양에 의하여 사람이 하늘과 하나됨[天人無間]을 실천하는 사람을 신유학에서는 聖人이라 하여, 개인 수양의 목표를 聖人이 되는 것으로 具體化하였다. 그리하여 至治가 이루어지는 理想社會의 실현은 사회구성원 個人이 수양을 통해 聖人이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구성원 전체가 一時에 聖人이 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먼저 聖人이 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성인이 되도록 이끌어 갈 방법밖에 없다.

靜菴선생은 당시의 군주인 중종이 수양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至治의 理想의 實現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河西선생이, 1520년에 世子에 책봉되고 1544년에 즉위하여 다음해 (1545, 인종1)에 薨逝한 仁宗으로부터 恩遇를 입음이 날로 隆盛하였음은 尤庵 宋時烈 선생이 撰한 「神道碑銘 竝序」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己卯士禍로 罷榜된 賢良科를 복구하고 靜菴선생 등을 (즉위 이듬해인 1545)년에 伸冤한 것이 河西선생의 영향으로 仁宗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또한 河西선생의 學問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河西선생이 梁應鼎에 의해 그 인품이 칭송되어 「오늘의 顏子(今之顏子)」로 일컬어진 사실도, 단순한 孔聖 다음의 存在라는 뜻을 넘어 學問의 目的을 聖人이 되는데 두는 투철한 聖人志向의 學問觀이 바로 河西 金麟厚선생의 學問觀임을 象徵하고 있는 것이라고 筆者에게는 생각되어 마지 않는 바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인간이 드물다. 불운을 다루는 드라마가 넘쳐나고 있다. 사람다운 사람을 지향하는 학문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

일본사회는 品格있는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 소련 연방 시대의 러시아의 동양학자인 콘라드는 宋史에 특유한 道學傳을 매우 중시하였다. 월남의 호지명은 한번도 반유교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온존하고 있다.

河西先生의 학문은 聖人中心의 학문이었다. 大學章句와 大學或問을 매우 중시했고, 中庸과 주역 계사전과 西銘을 중시했다. 현대유학이 중시하는 것을 河西先生은 거의 완벽하게 이미 꿰뚫어 보았다. 河西詩를 잘 연구하면 하서사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3월 13일 淸麓堂에서 강연

河西先生の詩友 蔡仲吉은 누구인가?

김재수 (광주교대 명예교수)

1. 序頭

蔡仲吉과 尹士栗은 河西가 유달리 허물없이 사귄 벗이다. 蔡仲吉은 놀재 朴祥선생에게 처음 배웠고 신재 崔山斗선생의 제자가 되었다.

尹士栗은 신재 최산두의 제자다. 굴정 윤구 선생을 찾아가 배우는 열정도 보였다. 김인후 유희춘, 채중길, 윤사율, 네 사람은 최신재 선생의 문하생으로서 평생토록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채중길과 윤사율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尹士栗은 29세에 요절했다. 河西는 「祭尹士栗文」을 지어 그와의 깊은 우정을 기렸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挽尹士栗」 4편(10수)을 지었다. (河西集 번역본 中 592쪽, 651쪽, 689쪽, 716쪽) 네 번이나 挽詩를 지어 그를 애도한 것을 보면 河西가 그의 죽음을 얼마나 애석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蔡仲吉은 자신의 詩를 여러차례 河西에게 보내어 평가받고 싶어했다. 詩를 써서 보내달라고 河西에게 졸라대곤 했다.

河西는 그의 詩文을 보고 그의 학문과 文章과 詩가 뛰어남을 찬탄하였다. 아쉽게도 蔡仲吉이 보낸 시편은 전해지지 못하고 河西가 그에게 보낸 詩 7편이 河西集에 전한다.

이 詩篇들은 다음과 같다.

- ① 寄贈蔡上舍仲吉 (河西集 번역본, 上 154쪽, 五言古詩)
- ② 仲吉求詩 (河西集, 上 336쪽, 五言古詩)
- ③ 八日 士栗得柳氏離騷於仲吉處示余 余悲其遭患哀之而爲之詩 (河西集, 上 342쪽, 五言古詩)
- ④ 次蔡仲吉問鷄詩韻 (河西集, 上 518쪽, 七言古詩)
- ⑤ 蔡仲吉求見吾詩集摘寫日錄中所付若干首題詩其上 (河西集, 上 610쪽, 七言古詩)
- ⑥ 懷仲吉 (河西集, 上 640쪽, 五言絕句)
- ⑦ 棲山寺 寄仲吉 (河西集, 上 640쪽, 五言律詩)

2. 蔡仲吉은 누구인가?

가. 蔡仲吉은 蔡無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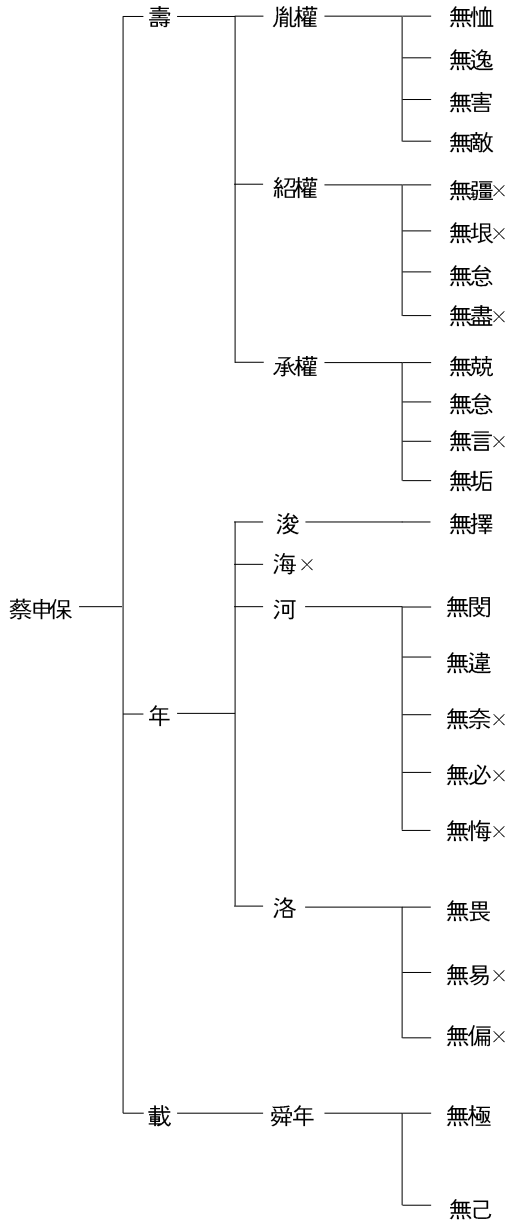
蔡仲吉은 본관이 仁川이고 이름은 無悔이며 仲吉은 그의 字이다. 蔡壽의 동생 蔡年의 손자로, 아버지는 蔡河이다.

仁川蔡氏족보 제1권 129~130쪽에 蔡無悔의 字는 仲吉이고 進士, 察訪, 妻는 宜人李氏(進士 淸의 딸), 묘는 연기군 동면 갈산 건향에 있다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道敎에 심취하여 名山에 은거한데다 자손이

없어 無로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蔡仲吉 無悔의 家系圖는 다음과 같다.



※ ×표는자손없음

나. 놀재 朴祥和 蔡仲吉

河西는 「寄贈蔡上舍仲吉」이란 詩에서 “맨처음 訥齋에게 문장을 배워 韓退之의 골수를 빼앗았다오. 太學館에 들어가 詞藻를 떨치니 南氏정승 참으로 知己였었네” 라고 썼다. 이로 보면 성균관에 들어가기 전에 朴祥에게서 문장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채중길은 언제 어떤 인연으로 놀재 선생을 만났을까? 蔡紹權(1480~1547)은 채중길의 당숙인데 놀재와 꽤 가까운 벗이었다. 놀재집에는 채소권에게 보낸 6~7편의 시가 실려 있다. 채소권은 놀재(1474~1530)보다 6살 아래이다.

놀재는 1496년에 進仕, 1501년에 식년문과에 합격했고 채소권은 1504년에 진사, 1506년에 별시문과했다.

朴祥和 蔡紹權은 언제 만나서 교류할 수 있었을까? 놀재는 강직한 성격 때문에 임금의 미움을 사여러번 外職으로 쫓겨났다.

채소권은 조정에서 요직을 맡아 계속 승승장구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간은 1501년에서 1506년 사이를 볼 수 있다.

특히 1511년에는 놀재가 수찬과 응교를 지낼 때 채소권이 정언이었으므로 이때에 사귀어 깊어졌을 것이다. 이후 놀재가 채소권의 고향인 상주(함창) 목사에 이어 충주목사를 지낸 1521년~1524년 사이에 詩를 주고 받으며 교류했다.

채소권은 문장이 당대에 뛰어나고 인품과 학문이 높은 놀재 박상을 존경하여 집안의 秀才인 채중길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많다. 채중길의 세거지가 忠州 淸州 권역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

채중길의 나이를 河西와 동년배로 본다면 1511년은 너무 어리고, 1521~1524년에 놀재에게 배웠을 것이다.

채중길의 나이를 河西보다 5살 위로 잡아도 1511년은 6세밖에 되지 않으니 채중길은 1521~1524년 사이에 놀재에게서 문장을 배웠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채중길의 家系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그의 집 안에는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 집안에 학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初學은 집안에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나서 당시 문장이 뛰어나기로 이름이 높았던 놀재에게 처음으로 배움을 청했을 것이다.

다. 新齋 崔山斗와 蔡仲吉

河西는 채중길이 최신재의 門下生이었음을 「寄贈蔡上舍仲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新齋선생 문하에 노니던 옛날
상종이 그때만큼 자진적 없어
풍설이 몰아치던 그 어느 해에
高軒에서 잠깐 서로 만나봤는데
때마침 尹士栗이 동석을 하여
셋이 앉아 옛 역사를 이야기했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벌써 몇해라
바라보면 산과 물만 가로 막혔네
聚勝亭 앞에서 밀락당기락
금성관 안에서 흠뻑 마시며
행락을 함께 하던 그 때 일들이
생각하면 상기도 눈에 선하네
崔랑 尹은 벌써 전 이승 떠났고

羅侯는 晝방 입어 귀양사는 몸
죽고 삶은 府仰 하는 한 순간이라

이 詩로 보면 채중길은 최신재의 문하생이 되어 그의 제자들인 河西, 尹士栗, 柳希春 등과 나주와 동북에서 자주 어울렸음을 알 수 있다. 송재 나세찬과도 사귀어 깊었던 모양이다.

蔡仲吉은 崔新齋 선생을 위해 司馬齋를 세우는 서한까지 써서 친구들에게 보내고 있으니 그가 신재 선생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중길은 언제 어떤 인연으로 신재 선생의 제자가 되었을까?

첫째로 놀재에게 배움으로써 호남사람과 인연을 맺은 그가 명망이 자자했던 신재 선생의 門下를 찾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달리 생각해보면 최산두 선생은 그의 당숙인 蔡紹權과 함께 1504년에 進士시험에 합격한 동방이다. 채소권은 1480年生이고 최산두 선생은 1483年生이다.

두 사람의 연보를 비교해보자.

• 崔山斗 (1483~1536)

1501년 上京, 조광조, 김정, 김안국과 교유 (洛中君子)

1504년 진사

1508년~1513년 성균관에서 공부

1513년 별시 문과

1514년 홍문관 저작

1516년 홍문관 박사

1517년 홍문관 수찬, 정언

1518년 홍문관수찬, 보은 현감 性理大全 강할

26명에 뽑혀 호당에서 사가독서
1519년 이조 정랑, 장령, 사인, 기묘사화,
동복유배

• 蔡紹權 (1480~1547)

1504년 진사

1506년 별시 문과

1511년 정언

1520년 홍문관 부응교, 장령, 사간, 사헌부
집의, 홍문관 전한, 시독관, 동부승지

1523년 좌부승지

1524년 대사간, 홍문관 부제학

1528년 청주목사

위의 연보를 대조해보면 1504년에 같이 進士
에 합격한 후 채소권은 바로 1506년에 별시 문
과하여 1528년에 청주목사로 나갈 때까지 조정
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반면에 최산두는 1513년에 별시 문과할 때까
지 10여 년간 학문에만 전념했음을 알 수 있다.
1513년 문과에 합격한 후 1518년까지 홍문관에
서만 봉직했다.

따라서 길게 잡으면 1504 ~ 1519년까지 15년
간, 짧게 잡으면 1511 ~ 1519년까지 8년간 조정
에서 서로 교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채소권이 집안의 당질인 채중
길을 당대 최고의 道學者로 명성이 높았던 崔山
斗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방이라고 해서 다 친한 것은 아니
다. 채소권은 처남인 金安老를 싫어해서 사이가
나빴지만 기묘사화 때 사간원 사헌부 직책을 맡
아 金淨등을 처형하도록 주장했으니 기묘명현
인 최산두와 친한 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으로 忠州, 淸州, 尙州에 世居했던 채중
길이 당숙 채소권의 소개로 놀재의 제자가 되었
고 호남 사림의 중심이었던 최산두선생의 제자
가 되어 신재의 문하생 및 호남 사림들과 교유
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라. 蔡仲吉의 교유人物

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그가 사권 인물
들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河西集에 언급된 것
만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교유했던
人物들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그의 家系圖에 나타난 인맥을 더
하면 교유 인물의 범위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놀재
와 최고의 도학자인 신재를 스승으로 모셨으
니, 두 분의 벗과 제자들과의 교유가 있었을 것
이다. 신재선생의 제자로는 김인후, 유희춘, 윤
사을을 들 수 있다. 1536년 중시에 장원한 策文
에서 권신 金安老를 통박한 것 때문에 金安老
일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던 松齋 나세찬과
의 사림이 특이하다.

원로 인물로는 영의정을 지낸 鄭光弼
(1462~1538)이 있고, 한 때 김종직의 문인이었
던 남곤(1471~1527) 정승과는 참으로 知己였다
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문장이 뛰어나고 재기
발랄했던 모양이다. 남곤은 큰할아버지 蔡壽의
묘비명을 썼던 인물이다. 蔡氏 집안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던 문제의 권신 金安老(1481~1537)
는 그의 당고모부로, 채소권의 처남이다.

기묘명현인 老泉 金湜(1482~1520)의 三子인
金德器는 어질고 문장에 뛰어났는데 채중길과
사귀었다. 그 밖에 蔡克丁, 靈觀師, 崇上人, 養
浩, 醉翁堂 등의 이름이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이 의기양양했던 폭넓은 교유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이다.

南氏정승 참으로 知己였었네
이 뒤로는 너무도 失意를 하여
십여년이 흘러라 지나간 세월
친구조차 드문데 병에 누우니
어느 뉘게 사생을 의탁하리오
.....

지난번에 제집종이 다녀 왔을 때
그대 말씀 전해 듣고 몹시 슬펐네
구슬픈 눈물로써 하직하노니
살아서 이번이 마지막인듯
다급한 연사가 하도 하지만
대강은 이 뜻에서 벗어났으리
訣別의 挽章마저 청해 왔지만
내 차마 이 글을 짓는단말가

寄贈 蔡上舍仲吉

위 詩에서 보듯이 채중길은 남곤 정승과 막역하게 지낸 후로 너무도 失意를 하여 10여년 긴 세월을 친구들과 멀어지고 病에 누워 死生을 의탁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남곤이 정승이 된 해가 1523년이니 그 후로부터 10년이면 1533년까지이고, 이 詩가 1536년 혹은 1537년에 쓰여졌으니 그 이전 10년간은 1527~1537년이 된다. 얼마나 사정이 절박했으면 河西에게 구슬픈 눈물로써 하직인사를 하고 訣別의 挽章까지 청해왔을까? 그를 너무도 失意케 하여 人生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절망적인 사건은 무엇일까? 그의 일신에 불어닥친 집안의 개인적인 불행과 政治적으로 겪은 수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림파인 놀재와 신재의 제자이면서 훈구파인 남곤과 절친함으로서 겪게 되는 갈등 또는 기묘사화의 후유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산두 선생의 제자가 된 것과 金湜의 아들 김덕기와 친한 것이 기묘사화 이후의 일이니 그런 갈등이 아닐 수도 있다.

1527년의 남곤의 죽음, 권신 金安老로 인해서 겪게 되는 蔡氏 집안의 여러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려고 한다.) 채중길은 기막힌 실의로 인해 大科를 포기하고 道教 사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道敎的인 詩를 써서 河西에게 보냈는데, 河西는 그의 시에 감탄하면서도 出處의 바름과 儒敎的인 가치관을 들어 그에게 은근히 충고하였다.

‘듣자 하니 우리님은 名山에 가서 정신수양 眞一을 지킨다고요? (仲吉求詩)로 보아 그가 出家하여 名山에 가서 道敎的인 수련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젊은 시절 이후의 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즉 出家하여 산 속에서 道家的 수련을 함으로써 젊은 시절의 인간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마. 蔡仲吉의 詩文題目

채중길은 詩文들을 엮어 여러차례 河西에게 보내 詩評을 듣고자 했다. 또 자기에게 詩를 써서 보내주기를 독촉하곤 했다. 河西는 그의 詩文을 필사하여 소중하게 간직하였다.

성균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더니 모두 깜짝 놀라 암송하고 필사하느라고 야단법석이 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전한 것은 한편도 없다. 그의 詩文의 세계를 짐작해 보기 위해 그가 河西에게 보낸 詩文題目을 열거해 보고 그

의 문학세계를 엿 볼 수 있는 河西詩 두편을 소개한다.

蔡仲吉의 詩文題目

- ① 聞鷄詩
- ② 神明舍記, 주①
- ③ 禹問辨
- ④ 醉翁堂序
- ⑤ 春杜鵑慰光弼, 주②
- ⑥ 洞賓浪吟過洞庭
- ⑦ 漢武帝殺釣弋論
- ⑧ 諫鬪碁書
- ⑨ 崔先生司馬齋建立書, 주③
- ⑩ 代人請給侍丁
- ⑪ 兩言其思勉養浩
- ⑫ 何以教我問丕承, 주④
- ⑬ 觀師一篇, 주⑤
- ⑭ 壽福歌
- ⑮ 贈金德器縱橫說, 주⑥

참고 삼아 간단하게 註를 달아본다.

註① 神明舍記: 神明은 마음을 뜻하고 神明舍는 마음의 집을 뜻한다. 神明舍圖는 마음의 집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朱子도 神明舍를 썼으며 南冥 曹植도 「神明舍圖銘」을 지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석학 金忠烈박사의 「남명 조식의 학문과 선비정신」 301쪽~338쪽에 있다. 김충열박사는 이 「신명사도명」은 儒家 수양공부론의 총 귀결이요 대표적인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도교적 색채가 가미된 마음 수양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으로는 伏菴의 神明舍銘集解가 있다.

註② 영의정 鄭光弼이다.

註③ 崔山斗先生을 위해 司馬齋를 건립하자는 글이다. 崔山斗先生 밑에서 수많은 進士들이 배출되었으니 선생을 위해 사마재를 건립하자는 서신이다.

註④ 丕承은 송재 나세찬의 字이다. 이로 보아 채중길이 호남사람들과 사귀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註⑤ 영관靈觀(1485~1571년) 조선중기의 선승. 지리산에서 智嚴을 모시고 수행. 靈觀師 또는 觀師라고 지칭함. 유교와 도교에 통달하여 김안국, 박상, 김인후 등과 교유했음.

註⑥ 金湜의 3자로 어질고 문장을 잘했다. 金湜의 五子는 德秀, 德純, 德器, 德懋, 德成이다. 채중길이 김식의 아들과 친했다는 것은 기묘명현과 가까운 사이임을 뜻한다.

3. 맺는 말

이로써 河西의 절친한 詩友 채중길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그는 蔡無悔이며 仲吉은 그의 字이고 仁川蔡氏 蔡壽의 동생 蔡年의 손자요 蔡河의 五子였다. 놀재에게서 문장을 배우고 신재에게 수학하면서 최산두선생의 제자들과 교유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의 당숙 채소권은 놀재와 절친한 벗이요 최산두선생과는 進士동방임을 알 수 있었다. 영의정·정광필, 남곤과도 교유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문장과 재능이 비범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그가 가정의 불행 대문인지, 정치적인 수난 때문인지 크게 좌절하여 대과를 포기하고 道教에 빠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글에서는 그의 좌절과 불행이 무엇인지, 河西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려 한다.

채중길(蔡仲吉)의 문계시(聞鷄詩)의 운에 차하다

河西 金麟厚

어젯날 손수 적어 시 한통을 보냈기에
무릎 꿇고 받으면서 마음 먼저 떨렸었네.
잠간사이 중길을 만난 듯이 생각되어
등불 아래 펴들고서 적막을 달랬다오.
금 옥인양 좋은 글귀 사람눈을 빼앗아서
정신이 오락가락 처음에는 현혹했네.
뜻과 마음 다 기울여 오래 뒤에 깨달아라
외어보니 갑자기 무엇을 잃은 듯해.
웅변(熊蹯)과 표태(豹胎)로도 비유하지
못할텐데
우리집 콩알국이 언감인들 건줄손가.
저 옛날 성현님의 천편 만권 글월들이
뱃속에 가득 실려 있지가 않다며는.
어찌 능히 하나하나 제 입으로부터 나와
범람하고 발월(發越)함이 이 지경에
이들손가.
손으로 뒤적여라 눈으로 훑어 보며
어찌 감히 틈을 주리 앓은 탐이 구멍 났네
사연이 슬플 때는 간장이 꺾이더니
기쁜 말엔 도리어 춤을 출 듯 즐겁구려.
바람 치고 비 뿌려라 고래 봉새 모여드니
지느러미 비늘이 거꾸로 솟구치네.
한(韓)의 기(奇) 두(杜)의 경(硬)과 멀리 서로
추축(追逐)하여
어깨를 내두르며 천지를 독보하네.

천년이라 갑 속의 두 자루 용천검이
밤중이면 붉은 빛 저 하늘에 솟구쳐라.
성낸 기세 삼협(三峽)의 강물을 넘어뜨려
배 띄워 거슬리니 뉘라 능히 뒤집으리.
팽경(彭鏗)이 언감인들 대춘(大春) 앞에
뽐낼건가
망양(望羊)하는 하백(河伯)이 해약(海若)
에게 부끄러워.
조화를 무시하고 기축(機軸)을 뒤흔드니
때로는 진재(眞宰)가 눈물을 흘릴걸세.
천금(千金)의 아들이라 천자의 재상들이
죽도록 구했건만 못얻고 말았는데.
무슨 수로 그대는 하루아침 얻어내어
평생을 두고서도 남음이 있는건지.
그대 한몸 공한 것도 하늘 뜻이 아니런가
심상한 데 처해 있어 한가한 세월 얻어.
느긋이 시서(詩書) 속에 유희를 하게 하고
남 하는 일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오.
공명(功名)이란 본시가 늘그막에 있는거라
깊은 산 저 송백이 포류(蒲柳)함께
시들어 떨어지리.
이러기에 예부터 현달한 사람들은
득실이라 비환(悲歡)을 조물(造物)에
맡겼다오.
천지라 만물이 나에게 어찌리요

털끝 먼지 따져가며 불평을 가질건가.
 대도(大道)란 몸밖에서 구하는 것 아니라네
 눈앞에 눈썹마냥 지극히 가깝다오.
 몸을 닦아 기다리면 백가지가 근심없어
 건곤(乾坤)이 박복(剝復)으로 오가는 걸
 못보았나.
 요컨대 사(事)와 물(物)이 내게 누(累)가
 없어야만
 비로소 내마음이 활발해지고말고.
 내 스스로 재앙을 만들지 않았다면
 필경에 어찌하여 살 수 없다 이르리요.
 화복(禍福)이 아득하여 측량키 어렵지만
 이로써 미뤄 가면 거의가 통할걸세.
 내세를 내다보아 성인을 기다려도
 천번 생각 만번 계획 이밖에는 다시 없네.
 그대 시(詩)를 읊고 나서 우주에 기대이니
 눈서리 바람 치운 겨울이라 선달일세.
 이별생각 해 저물자 더욱더 어지러워
 못산을 바라보니 정히도 시름겹네.
 그리운 벗님네를 만나볼 길이 없고
 빛나는 문장만을 호올로 흠탄하네.
 생각하면 나는 되려 얻음 많아 기쁘다오
 눈에 가득 이주(驢珠)를 주어담기 바쁘구만.
 이 시(詩) 혹시 바람비로 변해갈까 두려워서
 이날을 넘길세라 붓을 들어 베끼어서.
 상자에 깊이 넣고 펴해보길 삼가지만
 이피 또한 골짜기에다 배 숨긴 격이 될까.
 생각하니 지난 해 백운산에 올랐을 제
 하나하나 내 걸음 아니간데 없었거든.
 근처 여러 산 가운데 예가 가장 절경이라
 기이한 새 짐승들 하 많이 깃들었네.
 금장(金漿)한잔 기골(肌骨)을 가볍게
 할테지만

영액(靈液)이 한정 있어 하늘이 아낄걸세.
 이몸이 진망(塵網)속에 한번 떨어지고 나니
 호중(壺中)의 해와 달을 헛되이 보내기만.
 꿈생각은 부질없이 창벽(蒼壁)에 걸렸으나
 바구니 옆에 끼고 약 캐러 갈 겨를 없어.
 듣자하니 돌길이 더욱 높고 가파르는데
 단청의 누각들이 빛이 나 찬란타고.
 뉘가 그 주인인가 숭상인(崇上人)이
 바로 이라
 입속에 연화(煙火)음식 끓은 적이 오래라지.
 뜬구름 마냥 홀로 왕래가 자유로우니
 구속없는 방외(方外)사람 그야말로 쾌골
 (快鶻)일래.
 조만간 그대 따라 신선을 찾으리니
 일별(一瞥)의 영고(榮枯)쯤은 걱정할게
 무엇이람.
 적벽(赤壁)이라 창파(滄波)는 말 들은지
 오래거니
 만 이랑에 넘실넘실 풍연(風煙)이 젖었다오.
 청기(淸奇)는 본래부터 조화의 힘인지라
 거령(巨靈)이 쪼갬건가 잘린 듯이
 우뚝하이.
 어느때 술을 들고 명월편(明月篇)을
 읊으면서
 유연히 그대 함께 두눈을 넓힐건고.
 만고라 불평 서린 내가슴을 활짝 씻고
 이모 저모 좋은 경치 어울린 그 가운데.
 한가락 긴 휘파람 굿는 듯이 불어가면,
 성낸 물결 휩쓸리어 어지러이 솟구치리.
 이게 바로 내 진작 원하던 일이라서
 마음속에 새겼어라 노상 아니 사라지네.
 아마도 우리님이 내 회포를 알겠기에
 권후(卷後)에 시를 써서 이와같이 사퇴노라.

次蔡仲吉聞雞詩韻

昨見手書詩一通，跪而受之惕齋慄。
造次如逢仲吉面，展把孤燈慰寂寞。
瓊章繡句奪人目，眩轉茫迷始焉惑。
傾心致意久乃見，口誦忽焉如有失。
熊蹯豸胎未以喻，不比吾家藜羹薄。
若非前代聖賢文，千編萬卷磊落載其腹。
安能一一自己出，汎濫發越至此而不覺。
手披目覩豈敢暇，對此真成榻穿膝。
悲辭既令人肝摧，喜語還堪蹈舞樂。
翻風激雨宰鯨鵬，鱗鬣撐披相倒側。
韓奇杜硬遠追逐，掉臂乾坤步可獨。
千年匣中二龍劍，半夜精光射天赤。
怒勢快倒三峽流，刺船直泝誰能覆。
彭鏗不敢誇大春，河伯望洋羞海若。
憑陵造化撼機軸，有時懸知真宰泣。
千金之子天子宰，抵死求之猶不得。
何君一朝得有餘，受用平生長快足。
天遣此身窮有意，欲令尋常就暇逸。
逝將遊戲詩書中，不許容易隨人役。
功名元在老大時，深山松柏豈共蒲柳與零落。
所以從前賢達人，得喪悲歡任亨毒。
天地萬物如吾何，芥蒂寧須較塵刹。
大道本非身外求，至近無殊眼前睫。
修身以俟百不虞，不見乾坤剝而復。
要將事物莫我累，始可放得心地濶。

觀吾固非自作孽，畢竟其何不可活。
雖言倚伏渺難測，用此推之庶可達。
行將百世俟聖人，萬計千思無此出。
吟君詩罷倚宇宙，霜雪風寒冬季月。
離思向暮益撩亂，南望羣山政愁目。
眷言懷人不可見，獨撫文章欽煥赫。
顧我欣然還自得，滿眼驪珠忙掇拾。
切恐此卷化作風雨去，呵筆傳謄及此日。
深藏篋笥慎輕發，此計亦怕舟藏壑。
反思前年登陟白雲隈，巖邊芳草一一皆吾所踐躐。
此是近境諸山最絕處，奇禽異獸爭栖託。
金漿一酌肌骨輕，靈液有限天應惜。
自從一落塵網中，壺中日月虛拋擲。
空勞夢想掛蒼壁，未遂傾筐剝山藥。
今聞石路益峻急，結構丹青爛生色。
誰其主者崇上人，口中久絕煙火食。
浮雲去住獨自如，方外無拘真快鶻。
早晚隨子尋輕蹤，一瞥榮枯何足恤。
滄波赤壁久聞名，溶漾萬頃風煙濕。
清奇自是造化工，巖巖非由巨靈劈。
何時舉酒誦明月，與子悠然雙眼豁。
洗我萬古崢嶸胸，勝景森羅來合沓。
劃然長嘯時一聲，怒浪驚波紛激射。
此固皆吾所嘗願，銘在心頭長不滅。
庶令夫子知余懷，卷後題詩具此白。

채중길(蔡仲吉)이 내 시집 보기를 구하므로 일록 중에 붙어있는 것 약간 수를 따서 쓰고 그 위에 시를 쓰다

河西 金麟厚

거년이라 여름 철에 귀고(貴稿)가 손에 들어와
두 책을 펼쳐 보고 눈과 마음 밝았었네.
천 만이 다 보화(寶貨)라 어느 것을 가려내지.
붓 잡고 쓰려 드니 경중 분간 어렵구려.
먼 지방 특이한 것 검할 수는 없는 거라.
도량(稻梁)이랑 화자(餽炙)는 다만 뜻에 맞는 대로
신명사(神明畬)의 기(記)에다 우문(禹問)의 변(辯)이랑
잡설(雜說)에 취옹당(醉翁堂)의 서(序)마저
아우르고
봄을 느낀 두견새로 광필(光弼)을 위로한 것과
여동빈(呂洞賓)의 읊조리며 동정호(洞庭湖)를
지난 것과
한 무제가 구익부인(鉤弋婦人) 살해한 논설이며
투기(鬪基)를 간한 것과 최선생(崔先生)께
준 것으로
사마재(司馬齋)를 세우자는 두 가지 서한에다
어떤 이를 대필하여 시정(侍丁) 지금 청한 것과
생각하라 두 번 말해 양호(養浩)에게 권한 것과
무얼로 날 가르치려나 비승(丕承)에게 물은 것과
관사(觀師)의 한 편이며 수복(壽福)의 노래들과
김덕기(金德器)에게 증(贈)한 중흥의 설(說)이로세.
산천이 머지 않다 시 아래 발(跋)이 있고
그 사이에 사(詞)가 널리 이 또한 영화로세
한 권을 편성해라 이상의 열두어 편
그 비중이 경요(瓊瑤)에 내리지 않네 그러.

서울에 가져 가서 가끔 한번 펴어 보니
팔방의 호준(豪俊)들이 놀라 서로 전하누나.
베끼기가 뒤질세라 지필(紙筆)을 다뤄가며
구경하고 외워대니 소리가 우레 같아.
이 책을 지금 보니 더욱더 절묘해라
귀신을 감동하여 금옥이 쟁글 쟁글.
그 중에도 문계(聞鷄)시가 가장 좋아 흥 돋우니
성당(盛唐)의 대가들도 형과 아우 뉘가 되리.
그대 일가 극정(克丁)이란 어떠한 인물인가
이 시와 역시 함께 성명(聲名)을 남기겠군.
기마(驥馬) 꼬리 붙은 파리 천리를 능히 가니
유가(柳家)의 장진(張進)에다 한가(韓家)의
성(星)이로세.
원직(元直)을 보낸 부(賦)는 굴송(屈宋)의
열(列)이거니
부려(富麗) 함은 이게 바로 청출어람(靑出於藍)
아니겠나.
정동(丁童)의 부른 노래 한층더 뛰어나니
뉘라 감히 소리 내어 읊어 보지 못할래라.
가을달 양명(揚明)하다 몽수(夢授)를 칭송하고
윤사의(尹士毅)에 증하여 금성(金城)을 희롱했네.
건지(健之)라 효원(孝元)이라 여러 작품 중에서도
찬혈(鑽穴)이란 한 시가 자못 새길만 하이.
전편(前篇)의 기론(記論)을 정성껏 기록하여
아침 저녁 살펴보며 법칙으로 삼는다오.

蔡仲吉 求見吾詩集 摘寫日錄中所付若干首, 題詩其上

去年夏月得貴稿, 二冊披前心眼明.
千奇萬寶何取舍, 把筆欲寫難重輕.
遐方異味不可兼, 稻粱膾炙惟稱情.
神明舍記禹問辨, 雜說醉翁堂序并.
感春杜鵑慰光弼, 洞賓浪吟過洞庭.
漢武帝殺鉤弋論, 諫鬪基與崔先生.
建立司馬齋二書, 及代人請給侍丁.
兩言其思勉養浩, 何以教我問丕承.
觀師一篇壽福歌, 贈金德器說縱橫.
山川不遠詩有跋, 詞列其間斯亦榮.
編成一卷十數篇, 重之不減瑤與瓊.
持行洛北時一閱, 八方豪俊傳相驚.
爭將紙筆書恐後, 一齋誦玩聲驚霆.
今看此卷尤絕奇, 妙感鬼神金玉聲.
中間最喜夜聞鷄, 盛唐大家誰弟兄.
君家克丁何許人, 亦與此詩垂聲名.
蠅隨驥尾致千里, 柳家張進韓家星.
送元直賦屈宋列, 富麗恐是藍出青.
丁童唱歌更發越, 使人不得出聲鳴.
秋月揚明頌夢授, 贈尹士毅戲金城.
健之孝元諸作中, 鑽穴一詩殊可銘.
謹錄前編記論後, 朝暮觀之爲儀刑.

실천원리인 ‘중용’

‘중용’(中庸)은 유교사상의 핵심개념이요 가장 오랜 근원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주자(朱子)는 요(堯)→순(舜)→우(禹)로 계승되어 온 옛 성왕(聖王)이 하늘의 뜻을 이어 기준을 세움으로 도통(道統)으로 전해오는 유교적 가르침의 핵심을 ‘중(中)’으로 확인하였다. 곧 요임금(堯)은 순임금에게 “그 중(中)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允執厥中)고 훈계하고,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숨어 있으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그 중(中)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훈계하였다. 여기서 ‘중’은 바로 ‘중용’의 도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원리이며, 동시에 현실에서 천명(天命)에 따르고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실천원리가 되는 것이다. 정자(程子)는 ‘중용’의 의미를 해석하여, ‘중(中)은 치우침이 없는 것 [不偏]으로서 천하의 바른 도리[正道]요, ‘용(庸)은 ‘바뀌어 없는 것’ [不易]으로 천하의 정해진 이치(定理)라고 하였다. ‘천하의 정해진 이치’란 불변하는 최고의 원리임을 가리킨다.

‘중용’은 그 구현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양상으로서, (1) 인간의 내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심성적 근원성이요, (2) 전체의 균형을 이루고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시키며 이질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통합의 기준이요, (3)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분별하는 가치판단의 원리요, (4)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속에서 구체화된다는 네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新齋 崔山斗의 道學精神

- 제 23차 학술 강연 원고 -

최대우 (전남대 교수)

신재 최산두는(성종14, 1483-중종31년, 1536) 조선조 중종 때에 도학을 실천하다 피화를 당한 기묘명현이다. 기묘사화는 일반적으로 사화의 주역인 정암 조광조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글은 신재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기 위해 쓴 글이기 때문에 신재의 도학사상을 중심으로 기묘사화를 서술할 것이다.

그런데 신재가 남긴 글이나 그와 관련된 문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의 도학정신을 문헌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재의 도학정신은 일부 남아 있는 문헌 그리고 당시의 사회 상황이나 정치적 분위기 또는 도학 선비들의 역할과 정신을 함께 고찰할 수밖에 없다.

신재의 도학정신은 혼탁한 정치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학정신은 당시 선비들의 공통된 의식으로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유학사에서 도학정신의 연원은 포은 정몽주 선생에게 둔다. 그러나 여기서는 戊午士禍(연산군 4년, 1498년), 甲子士禍(연산군 10년, 1504), 己卯士禍(중종 14년, 1519) 때에 화를 당한 김종직, 김굉필, 조광

조와 관련지어 고찰할 것이다. 지면의 한계도 있지만 신재의 도학정신은 이들의 의리정신과 관련지어 고찰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화는 조선조 전기 세종 이후 성종에 이르는 사이에 형성된 조정의 훈구세력과 학계 사람들의 반목과 세력 다툼 속에서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지칭한다.

조선 왕조는 개국과 함께 중앙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향촌사회를 직접 간섭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권력의 집중화 정책에 따라 권력이 중앙 정부에 고이게 되자 훈구세력은 자연스럽게 부패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부패에 대해 향촌 선비들의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서 관학과 유학자들에 대한 갈등은 점차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관학파의 도덕성 문제를 비판하고 대항한 유학자들은 도학정신을 표방한 사림파였다.

이들은 정치적 윤리적 측면에서 성리(性理)정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통치자는 자신들이 먼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도덕정치를 강조하였다.

치자는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사리사욕보다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하여 치자나 피치자가 모두 도덕적일 때 비로소 평화로운 세상을 열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정치 목표요 이상이였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성리학적 윤리규범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규범은 효제충신의 실천 그리고 청렴과 의리를 지킬 때 실현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한편 앞서 말한바와 같이 도학정신은 조선조 개국 초기의 정치상황과도 관련지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선조 개국 후 한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을 지지하는 파와 멸망한 고려조를 지지하는 의리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의리파는 목숨을 버리거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유학의 의리정신을 실천하였다.

의리정신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정몽주와 길재를 흔히 사림파의 연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사림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림의 입장을 직접 대변했던 김종직(세종 13, 1431~성종 23, 1492) 이후의 일이다.

사람들은 성종 때에 이르러 중앙에 등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불공평한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차츰 훈구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여 이들과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게 된다.

성종 때에는 이러한 대립이 음성적이였다

고 한다면 연산군 즉위 후의 대립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권신 유자광은 사이가 좋지 않은 김종직과 그의 일파를 세조를 비방한 혐의로 몰아 처단할 것을 연산군에게 청한다.

김종직은 젊은 시절 弔義帝文을 지었는데, 柳子光 盧思愼 등은 이 글이 세조의 집권을 은연중 비방한 것으로 모함한 것이다.¹⁾

연산군은 이들의 청을 받아들여 김종직의 시신을 꺼내 조각내고, 그 제자들 대부분을 처형하거나 귀양을 보냈다. 이 사건이 연산군 4년(1498)에 일어난 무오사화이다.조의 제문의 내용은 의제를 조문한다는 글인데, 의제는 중국 楚나라 懷王을 가리킨다. 회왕은 項羽에게 죽임을 당한다.

김종직은 이 글에서 항우를 세조에게 비유하고, 의제를 端宗(魯山)에게 비유하면서 세조를 비난하고 단종을 동정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세조와 단종은 숙질간인데, 숙부가 조카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사림파 유학자로서 의리를 숭상한 김종직은 이러한 불의를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권력을 위해 혈육지간의 싸움도 모자라 왕인 조카를 신하인 숙부가 몰아냈으니 더 말이 필요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직언으로 불의를 고발한 김종직의 행위가 곧 의리와 도덕을 앞세우고 절개와 충직을 보여

1) 유자광은 和淵明述酒誥에 대해서도 김종직이 ‘零陵哀詩라 한 것은 零陵 즉 東晉末 安帝로서 魯山에 비한 것이요....’ 하여 종직이 세조를 비방하고 혈통은 것이므로 大逆不道로 논죄해야 한다고 고해바친다.

주는 도학정신인 것이다.

김굉필(단종 2년, 1454-연산군 10년, 1504)이 김종직과 연을 맺은 것은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이 때 21세의 젊은 김굉필은 김종직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소학」을 공부하였는데, 이후 이들은 각별한 사제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제관계가 빌미가 되어 김굉필도 평안북도 회천으로 유배되는 화를 입는다. 김종직의 제자로서 서로 결당하여 정치를 비난하고 시국을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연좌되어 곤장 80대를 맞고 유배된 것이다. 그 후 김굉필은 전라도 순천으로 다시 유배지를 옮겼는데, 이 때 최산두가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연을 맺는다.

연산군 10년(1504)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무오사화에 관계된 인사들에게 죄를 더욱 가중하도록 명함에 따라 김굉필은 마침내 사사되는 극형을 받게 된다.

김굉필 역시 초지일관 스승의 뜻을 받들고, 탐구와 실천 그리고 제자 교육에 전념하다가 화를 당한 도학정신의 실천자였던 것이다.

연산군의 폭정과 방탕은 이른바 중종반정의 성공으로 연산군 12년(1506)에 막을 내리게 된다. 반정 이후 중종은 조광조를 위시한 소장 학자들을 등용하여 유교의 이상 정치인 至治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치주의란 올바른 도를 배워 실천한다는 도학정신에 입각하여 도덕정치를 실현한다는 유가의 이상 정치를 말한다. 조광조가 현량과를 설치하여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였기 때문에 조광조 일파가 중앙에 진출하

게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자 위협을 느낀 훈구 세력은 견제와 충돌을 피하지 않았다. 훈구 세력의 반발은 마침내 조광조와 그 동지들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 사건이 이른바 조광조 일파가 피화를 입은 기묘사화(중종 14년, 1519)이다.

무오사화 이후 기묘사화에 이르기까지 사화의 주역이요 피해 당사자였던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 등에게는 일련의 공통된 의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綱常의 道德과 至治主義를 주장하고 실천한 이들의 삶은 불굴의 절개와 살신성인, 실천궁행의 도학정신이였다. 신재 역시 기묘년 피화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하면 그의 생애 역시 이러한 도학정신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재는 순천시 옥동으로 유배와 있는 김굉필을 찾아가 제자의 예를 올리고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는 도학 사림의 정신을 배우고 익힌다.

그 후 신재는 19세 때 한양으로 올라가 김굉필의 수제자 조광조(신재와 동갑)를 비롯하여 한충, 김구, 김식, 김안국, 김정국 등과 더불어 道義之交를 맺는다. 이들은 매일 서로를 방문하여 강학을 강구하였기 때문에 서울의 군자회라는 뜻으로 이들을 洛中君子會라 칭하였다고 한다.

신재를 조선조 사림의 정맥인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계보 안의 인물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묘사화 직후 조광조가 귀양지(능주)에서 사사되는 등 신진 사림 8인이 화를 당하였고, 이어

신재를 포함한 23인이 유배 또는 파직의 화를 입었다. 신재는 이 해에 삭탈관직을 당하고 전남 화순 동복현에 유배된다.

그는 14년간 유배 생활을 하다가 51세 때에 해배되었지만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다 3년 후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된다. 동복에 적거하는 동안 그는 속세의 득실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고, 勿染과 赤壁간을 소요하고 인근 유생들을 모아 강학에 열중할 따름이었다. 하서 김인후, 미암 유희춘은 신재의 명망을 듣고 찾아와 수학했던 高弟들이다.

II

도학은 흔히 성리학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 개념은 몇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첫째, 성리학은 天理나 人性을 이기이원론으로 체계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主知主義의 성격이 짙은 반면 도학은 천리나 인성을 말하면서도 堯舜에서 孔孟에 이르는 道統, 다시 말하면 정신의 계승을 중시하는 성격이 짙다.

둘째, 성리학은 객관적인 지식의 추구를 중시하지만 도학은 행위 즉 실천을 중시한다. 도학을 표방하고 도통의 관념을 고수하려는 것은 정통 유학의 순수성 즉 공자의 春秋大義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학은 大義로서의 義理 내지는 節義를 찾는 가치 지향의 색채가 짙다.

셋째, 도학은 가치 지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리학보다는 실천궁행을 강조한다. 도학정신은 성리학적 지행병진의 정신

을 극대화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성리학이 지닌 禮教的 安民, 즉 치인은 至治의 이상인 春秋大義 정신이 완전히 실현되어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살신성인의 순교자적 삶을 살게 한 힘은 근본적으로 춘추대의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학은 성리학적 실천유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도학은 공자가 강조한 道를 어떻게 하면 의리나 대의로 파악하고, 또 공자가 도로써 질서를 확립시키려했던 실천정신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를 탐색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천을 강조한 도학은 당시의 사회 상황과 관련지어 고찰되어야 한다.

조선 전기의 시대 상황이 성리학 연구보다는 도학 정신의 실현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조 중기 이후 유학자들이 치열한 理氣 논쟁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6세기 이전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 등 조선 전기의 도학 선비들은 의리나 대의를 몸소 실천하여 난세를 극복하는 것을 시대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 신재 역시 이러한 난세 극복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신재가 동복에서 유배 생활을 보낸 시간은 14년이다. 그러나 그는 유배생활 중에도 도학정신의 실현을 결코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신재가 제자들을 기르는데 온 힘을 쏟은 것은 교육만이 자신의 뜻과 동지들의 이상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도학 정신은 유배 이전은 물론이요,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진 것이다. 신재의 사림정신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종 11년에 신재는 매가 남쪽 지방의 토산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매의 진상을 중지시킬 것을 간언한다.

그리고 이듬해 능력에 따라 과감하게 인재를 등용할 것을 간언한다.²⁾ 또한 그는 임금의 신변에 관한 일까지 직언을 피하지 않았다. 즉 “여색으로 인하여 임금과 세자 사이가 멀어지고, 이를 이용한 간신배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니 부자의 정을 돈독히 하라”는 간언이 그것이다.

이후 신재의 언론은 臺諫이 되면서 더욱 거세지는데, 과거시험 답안지 내용을 문제 삼아 순창군수 유중익을 파직한 사건이 그 좋은 예이다. 孟子와 程子를 폄하한 글을 지은 자를 일등으로 뽑았다하여 처벌한 것이다.

유배 중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동복현 司馬所에서 진사, 생원들의 연회가 있었는데 신재는 수장의 자격으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신재는 오랜만에 행색을 갖추고 연회장소로 갔는데 유자들이 아직 모이지 않고 있었다. 사마소는 지방 관아의 옆에 설치된 사설기관으로 지방 정치를 감시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그곳에 출입하는 유자들의 위세는 자못 당당하였다.

좋은 점도 있으나 폐해가 심하여 선조 때 혁파되었는데, 당시까지는 여전히 큰 영향

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기관의 연회인지라 권세 있는 유자들이 한껏 체모를 뽐내려고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신재는 배알이 뒤틀려 잔치에 쓸 술을 몽땅 마셔버리고 시 한수를 지어 감나무 앞에 남기고 돌아와 버렸다.

푸른 뽕밭에 오디는 빨갛고, 감나무 잎사귀 어느새 살쨍구나. 정원의 풍물이 이만하면 그윽한 걸, 사마소 술 단지가 빈 까닭 모르겠지. 이 선생께서 술 취해서 돌아가는 모습 보아라.

비록 죄인의 처지이지만 호방하고 활달한 기개를 마음껏 펴고 지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화다. 마음에 죄가 없으면 무서워하고 기죽어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생에 대한 이러한 자세가 바로 도학 사림의 품모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III

신재가 남긴 글이나 관련된 문헌이 적지만 신재의 학문은 대체로 성리학에 바탕을 둔 호남 도학의 사종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신재는 15세 때에 주자의 「자치통감」강목 80권을 안고 광양 백운산 아래 석굴(學士臺)에 들어가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춘추대의와 大一統之義에 정통하였다고 한다.

22세 때에는 「朱子綱目」을 試題로 한 綱

2) 옛날에는 정승을 고를 때 사람됨을 중시했지 위계를 따지지 않았습다. 고구려 때 乙巴素를 산 속에서 데려다 정승을 삼은 일이 그 좋은 예입니다. 정승이라면 모름지기 위로는 성덕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료를 능히 거느릴 인재여야 합니다.

目賦를 지어 진사시에 장원하였는데, 이 글에서 신재는 주자강목의 연원, 역사관, 정통론, 위대성, 의의 등을 논하고 주자의 학문을 계승 실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신재의 학문은 주자학을 이념으로 한 지치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찍이 김종직을 사숙하여 정몽주 - 길재 - 김숙자 - 김종직 - 김굉필로 이어지는 조선 초 사림과 성리학의 학통을 이었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과 신진 사류들과 함께 도학정치를 통해 당시의 해이된 학문과 풍속을 개혁하여 요순의 지치를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강학의 필수 교과서는 『小學』이었다. 『소학』은 도학 사류의 정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교과서이다.

김종직은 그의 부친 김숙자에게서 “理學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실천공행을 중요시하라”는 충고를 받고, 소학의 가르침을 따라 거의 암송하는데 이르렀다고 한다.

그 이후 김종직은 『소학』으로 김굉필을 가르쳤고, 김굉필 역시 조광조나 신재에게도 소학으로 강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신재 역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단순히 문자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인격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교과서는 물론 『소학』이었으니 신재 역시 사림파의 학풍을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신재는 제자들에게 문자를 익히기에 앞서 청소하고 사람을 대하는 법, 나아가고 물러서는 법, 가친과 어른 및 스승을 모시는 법, 친구를 사귀는 법 등을 먼저 익히고 이를 실천하는 수행을 독실하게 할 것을 가르쳤다. 물론 修己는 유교 정치의 이상인 治人을 위한 것인데, 바른 인격을 갖춘 뒤에야 治人을 목표로 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소학』은 朱子의 문인 劉清之가 지은 책인데, 立教, 明倫, 敬身, 稽古의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비롯하여 오류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요약하면 律身, 修己를 가르치는 책이다. 사림들이 특히 『소학』을 중요시 한 것은 소학의 가르침이 수기를 통해 義理를 실천하는 선비의 이상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재 역시 수기의 철학으로써 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의리의 실천에 앞장선 선비로 평가하는데 이의가 없어 보인다.

비록 그의 이상을 정치현실에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사화 전후 그리고 유배생활 전후 그의 언행이 보여주듯이 신재는 修己와 義理의 실현을 자신의 사업으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리학이나 도학을 탐색한 흔적이 남지 않아 신재의 도학정신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어렵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자취는 그의 도학정신을 드러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2008년도 본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가 본회 회원과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12월 23일 열렸다. 박래호 총무의 백록동규 낭독에 이어 의례를 마치고 吳仁均회장이 차정현(한국보학회장), 이재원(전 전남도의원), 이정희(관선회장) 등 내빈을 소개하고 朴鍾達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김상덕씨 대신 받음) 오인균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鄭尙允 광주향교 전교, 朴泰根 광주향교 신입 전교, 金容淑 文正公派 부도유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金宅洙 전 도유사가 「河西路」지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좌중으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총회 안건으로 2008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무결산보고를 받고 심의 통과시켰으며 2009년에도 사업계획안과 수입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申斗千 성균관 전남본부회장(본회 부회장), 鄭尙允 광주향교 전교, 朴泰根 성균관 광주광역시 본부장이 화환을 보내 축하해 주었다.

金梓洙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河西는 왜 佯狂爲奴論을 썼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김교수는 강연에서 “河西 사상의 큰 줄기 하나가 「洪範, 禮記의 大同, 장재의 西銘으로 뻗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大同社會를 이루려는 정치이념이 담겨 있는 「洪範」을 연구한 흔적이 「洪範撰著作卦之圖」로 남아 있다. 이로써 우리는 河西가 왜 「佯狂爲奴論」을 썼는지, 왜 箕子가 저술한 「洪範」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河西가 佯狂爲奴

하여서라도 끝까지 몸을 보전하여 道와 義를 지키고 국가를 보전하려 했는지, 죽는 날까지 大同社會를 이루려는 꿈과 이상을 버리지 않고 節義를 지키면서 끝까지 부패한 세력과 맞서 말없이 저항했는지를 佯狂爲奴論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양광위노론은 河西의 인생관과 역사관과 철학을 담고 있는 귀중한 논설이라고 말했다.

3월 10일 임원회의 열림

山仰會 임원회의가 3월 10일 17시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오인균 회장, 신두천, 장원석, 김재수 부회장, 김용숙 상임고문, 박래호 총무, 김종환 별유사, 이충원 총무간사가 참여하였다.

박래호 총무가 춘향제 초헌관으로 安炳周 박사(성균관대 전 유학대학장), 아헌관으로 홍혁기(전북유림), 김창현(안동유림)이 선정되었음을 보고하고, 3월 13일 춘향제가 잘 봉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춘향제 교통편 제공문제도 논의하였다.

안건으로는 회비징수 및 회원관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계 학술대회 통보시 前年·當年 회비 납부상황을 개별 통지하고 납부계좌로 입금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필암서원 교육관이 금년 9월에 완공되면 하계학술강연은 필암서원에서, 겨울 정기총회는 광주향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하계학술강연 연사로 최대우(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에게 「新齋 崔山斗 선생의 제자들」이란 주제로 청탁하기로 했다.

2차임원회의의 5월15일에 예원식당에서 열다

산양회 2차 임원회의가 5월15일 12시에 예원 식당에서 오인균 회장, 신두천, 장원석, 김재수 부회장, 김용숙 상임고문, 박래호 총무, 양희택 재무, 김장수, 김종환, 이충원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건으로는 하계학술강연회 날짜를 6월 하순으로 잡고 산양회보 13집 편집에 대해 논의했다. 안병주교수의 강연원고, 河西先生의 詩友 蔡仲吉은 누구인가(김재수) 河西先生이 채중길에게 보낸 詩를 게재하기로 했다. 필암서원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방문록을 자세히 기록하여 회보에 홍보하도록 박래호 총무에게 요청했다. 회원동정도 자세히 조사하여 알리도록했다. 이날 식대는 장원석 부회장이 찬조하셨다.

裕堂 崔相玉 본회 고문

빛고을 인륜대상 수상

본회 崔相玉 고문이 제6회 빛고을 인륜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충효에 실천운동 광주시 연합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최회장은 지역경제와 인재양성에 힘써온 공로로 수상했다. 최회장은 63년 동안 윤리,투명경영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남화토건을 이 지역의 건강하고 깨끗한 회사로 키워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 강조한 최회장의 경영철학은 지역 기업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교육, 체육진흥, 문화, 예술, 사회복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소외계층과 불우 청소년들의 장학사업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매년 장학금 1억5천만을 기탁하여 어려운 학생들의 후진양성에 앞장서고 있어 본회의 자랑이 아닐수없다. 또한 녹수장학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 자녀 19명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최회장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여 전남대 발전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慕岩 金老洙 본회고문

장성군청에서 장학금 전달

모암장학회 이사장인 본회 金老洙 고문은 2009년 3월 10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고등학교생과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 1350만원을 전달했다. 金老洙 고문은 모암장학회를 설립하여 장성출신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로타리 활동에 성실하게 헌신하여 국제봉사상을 수상한바 있다. 96세의 고령에도 건강한 몸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 본회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金老洙 고문은 어려운 중친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명정리 중시조 흥려군 신도비 건립, 필암서원 국가 문화재 지정, 하서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河西集 번역본 출간, 화산공 및 맥촌공 유집 발간 등으로 문중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런 울산 金氏賞」을 수상한 바 있다.

嘉山 金宅洙 본회 고문

「자랑스런 울산 金氏賞」수상

河西선조의 詩文을 써서 문중에 빛나게 했으며, 흥려군 민씨할머니 어록비, 하서선조의 자

연가비문, 필암서원 주변정비 기념비문등을 써서 문중을 빛나게 했으며 「하서김인후 선생이야기」 4000권을 발간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읽게 했으며, 하서로 지정에 주도적인 역할을한 공로를 기려 이 상을 수상하였다.

海松 申斗千 부회장 君子書院 원장취임

君子書院은 1820년에 도내 유림과 후손들의 발의로 설립되어 梁山金氏 有恒齋 金亮, 節孝 金好光 杏亭 金伸光을 모셨는데, 이번에 東西齋를 완공하여 서원으로 정식 승격되어 본회 申斗千 부회장이 원장에 취임하였다. 성균관 典學 金得煥氏가 후손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

邊溫變회원 「大同의 꿈과 나의 발자취」 책 발간

범국민예의생활실천 운동 본부 이사장인 변 온섭 회원이 「大同의 꿈과 나의 발자취」를 발간하였다.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회장으로서 유교개혁, 유도진흥, 신향약운동 등 유교 현대화에 진력해온 발자취를 엮었다.

제 2회 經傳聲讀大會 朴來鎬총무 심사위원

본회 박래호 총무는 6월 13일 정읍시와 문화원이 공동주최한 제2회 전국 경전성독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入會를 환영합니다

서울시	洪奕基	光州市	文相近
大田市	柳淙鉉	光州市	金德中
全州市	金煥在	光州市	金采坤
光州市	安章淳	長城郡	金正柱
光州市	李琛洹	長城郡	沈貞變
光州市	李明秀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姓 名	金 額
(주)삼양사(광고료)	2,000,000원
전남도청 문예진흥기금	2,000,000원
산양회 부회장 金梓洙	300,000원
광주시 金寅洙	200,000원
부회장 申斗千	120,000원
광주시 金鎭午	100,000원
광주시 金東河	100,000원
전주시 金煥在	100,000원
총무 朴來鎬	100,000원

筆岩書院 春享祭

초헌관에 安炳周 박사

필암서원 춘향제가 3월13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춘향제에는 유한상 성균관 고문,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오인균 산양회장, 유종현 충청유림 대표, 김창현 경북 유림 대표, 박태근 광주향교 전교, 이청 장성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춘향제는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 술잔을 바치는 헌주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초헌관을 맡았던 安炳周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제를 마친 뒤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론했다.

안명예 교수는 “선생이 학문을 닦은 것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선생의 인도주의 정신과 中和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큰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제7회 河西선생 주모 漢詩白日場

2009년 4월 29일 필암서원에서

河西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제7회 전국 한시 백일장이 녹음이 진행되는 4월 29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전국 유림과 한시 동호인 15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祝筆岩書院重修 및 周辺整備事業完工」이란 詩題에 「年, 全,

煙, 連, 傳」을 압운으로 시를 지었다.

심사결과 영예의 장원은 부산 유림대표 서정민씨가 차지해 상장과 100만원을 받았으며, 次上에는 곽경순(대구), 정상호(안동)씨가, 次下에는 박학규(경북성주), 정상호(서울), 이창우(대구)씨에게 돌아갔다.

장원시

重修筆院幾經年 (중수필원기경년)

필암서원을 다시 손질한 것이 몇 회나 지냈을까

輪奐畢飛總萬全 (윤환휘비총만전)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간 듯하여 모든 것이 온전하구나

遺物回廊生瑞氣 (유물회랑생서기)

유물관 원진각은 서기가 솟아나고

祐東大廟起祥煙 (우동대묘기상연)

금직한 우동사는 상서러운 연기 솟아 일어 나네

精純道學泗洙續 (정순도학사수속)

정결한 도학은 공자님을 이어고

灑落文章閩洛連 (쇄락문장민락연)

깨끗한 문장은 주자를 연이었네

役畢江山增彩裡 (역필강산증채리)

공사를 마치니 강산은 채색을 더하였으니

德如日月永明傳 (덕여일월영명전)

일월 같은 덕은 영원히 밝게 전하리라

湖南儒林的 集成地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한 장성의 필암서원이 한국유학을 集大成한 한국유림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필암서원 성역화 사

업은 2009년 하반기에 마무리돼 호남유림의 메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장성군은 지난 1999년 유물전시관 신축을 시작으로 서원의 부지 조성, 주차장 건립, 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08년 5월에는 유물전시관을 비롯해 수장고 및 관리동, 휴게실 등이 준공되어 하서 선생의 유품을 전시함으로써 방문객이 많아졌다.

42억원을 투자해 숙박과 선비체험 프로그램을 직접운영할 수 있는 進德館, 崇義館 등 교육관을 2009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필암서원 성역화 사업이 완료되면 장성군은 유교문화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선비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한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유림들의 배움터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河西先生の訓蒙齋 복원

大法院街人研修館도 기공

훈몽재 복원공사가 작년 9월에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에서 기공되어 건설되고 있다.

훈몽재는 河西先生이 약 400년 전에 이곳 백방단 자락에 세운 강학당으로 원래는 訓家라 했다. 이곳에서 송강 정철, 고암 양자징, 월계 조희문, 금강 기효간, 호암 변성온, 永應 李至男등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추만 鄭之雲이 天命圖를 가지고와 자문을 구하여 河西의 天命圖가 쓰여질 계기를 만든 곳이다.

金相烈 대종회 부회장의 적극적인 협력과 강인형 순창군수의 배려로 河西先生의 학문과 정

신이 서려있는 훈몽재가 복원되어 청소년 수련장, 전통예절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街人 金炳魯 선생을 기려 街人의 생가터인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에서 2009년 2월 12일에 <대법원 가인 연수관> 기공식이 있었다.

훈몽재가 복원되고 대법원 가인연수관이 완공되면 河西와 街人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

김병일 이사장 필암서원 봉심

3월 22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이사장, 뿌리회 李鎔奎 회장, 金根鎬 언론계 元老등 80명 일행이 필암서원을 방문하고 우동사를 봉심했다. 지난달 19일 안동의 도산서원 경내에서 열렸던 기업은행 간부들의 선비문화 수련원 입교식에 필암서원 선비학당 박래호 선생과 장성군 관계자들이 하서 5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찾아와서 溫故而知新을 인용하여 축사를 해 준데 대한 답방으로 왔다.

도산서원의 선비문화 수련원은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도덕과 윤리는 가난했던 시절보다 뒷걸음질한다는 자성에 따라 설립되었다 한다.

2001년에 열린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가 계기가 되어 2002년부터 개인의 인격함양과 공동체의식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수련과정을 운영한다고 했다.

김병일 이사장은 “호남의 거유를 모신 필암서

원에서도 곧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니 정말로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 두 서원이 서로 돕는 문제로 좀처럼 이야기를 끝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月溪 趙希文 후손들

필암서원 방문

河西先生の 제자이자 큰 사위인 月溪 趙希文의 자손인 초기대씨 一行 20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필암서원을 찾아 봉심하였다.

그가 1568년에 쓴 河西集 초간본 서문은 河西先生の 文學과 學問을 가장 잘 집약한 名文이다.

1553년 별시문과하여 1536년 승문원 정자 성균관 전직, 사성을 거쳐 장흥부사 때 心經近思錄 性理大全을 강의하였다. 기대승, 백광훈, 변성온과 교유했다.

李至男 자손들 筆岩書院 찾아와 봉심하다.

李至男은 河西선생에게 가장 오래도록 수학했던 제자다. 字는 端禮로 河西先生이 지어 주었으며, 號는 永應이다. 정암 조광조의 제자였던 부친 李彦沈이 순창군수일 때 그를 河西의 門下에 보냈던 것이다.

李伸虎에게도 배운 孝子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河西선생에게 가장 오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이다. 河西集에는 그에게 보낸 시가 6편이 전하고 李至男字說이란 글도 있다. 제자들 후손이 필암서원을 찾아오니 더욱 뜻 깊은 만남이 아닐 수 없다.

春享祭 獻誠金內譯 2009年3.13(陰曆 2.17)

순번	內譯(獻誠金)	金額(원)
1	林東翼(全州)	50,000
2	山仰會	200,000
3	金鎮雄(蔚金都有司)	50,000
4	홍범희(長城黃龍面長)	50,000
5	金炳郁(文正親睦會長)	100,000
6	朴光鎬(農協長城支部長)	100,000
7	김문수(엠에스토포아소장)	100,000
8	이용한(장성삼계사창리)	30,000
9	鳳巖書院	50,000
10	潘沃鎭(長城高等校長)	30,000
11	김양수(本孫)	100,000
12	金宅洙(前都司)	50,000
13	김영풍(長城文化院長)	30,000
14	김성수(本孫)	30,000
15	詠歸書院	100,000
16	李幸榮(長城山林組合長)	50,000
17	韓在淑(長城警察署長)	100,000
18	車庄坤(長城畜産組合長)	50,000
19	金昌洙(蔚金壯山宗中)	50,000
20	양중호(鼓巖公宗會)	240,000
21	金鎭碩(本孫)	50,000
22	蔚金大宗會長, 光州鄉校전교	회환 2개
合 計		1,610,000

알림

1. 본회 제23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7월 1일(수요 일) 10 : 30
- 장 소 : 광주 향교 유림회관
- 주 제 : 新齋 崔山斗 先生의 道學精神 최대우 (전남대 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 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용숙)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9-832-4562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 事項 …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晉靑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총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남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화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1호)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靑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2호)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함.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晉靑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제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 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 보는 河西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전남대 명예교수)「河西 문학의 道學的이해」라는 주제로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의 주제로 강연